

## 아카이브

### 또 하나의 문화 아카이브

Ttomoon: Alternative Culture Archive

우리 사회의 여성주의적 대안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또 하나의 문화의 기록과 자료 아카이브

The archive of documents and resources to explore  
<Ttomoon: Alternative Culture> that has studied and practiced  
feminist alternatives to our society.

또 하나의 문화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해온 동인단체로서,  
1984년 설립 이래 공동체적 저작과 활동,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여성주의 운동을 실천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과 출판물, 기록과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 여성운동 위키

### 또 하나의 문화 위키백과

Ttomoon: Alternative Culture Wikipedia

80년대 이후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또 하나의 문화에 대한  
소개와 연혁을 중심으로 저작된 여성운동위키

A feminist wiki as an introduction and chronicle of  
<Ttomoon: Alternative Culture> that has been driving the feminist  
cultural movement since the 80s.

비영리여성단체들과 함께 시작한 여성운동위키의 한 장을 맡아  
위키저작방식을 통해 저작되고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  
(\*이하또문) 위키페이지는 또문의 가치와 철학, 역할과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4057)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74-5 대재빌라 302

T. 02-322-7946

E. tomoon.tomoon@gmail.com

H. <https://www.tomoon.eco/>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문화 아카이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 또 하나의 문화



### 또 하나의 문화는

평등과 평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 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1984년 설립되었으며, 젠더와 청소년, 청년, 노년 세대를 위한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학술·문화·교육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평등과 평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문화의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또 하나의 문화 아카이브 소개

또 하나의 문화 아카이브는 초기 20년간 발행되었던 동인지보(1984~2022, 1호~78호)와 동인지(1호~17호)아카이빙을 시작으로, 설립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캠프, 연극소모임, 월례논단, 고정희상, 고정희백일장, 소녀들의 페미니즘, 고글리, 또문대학 등 여성주의 문화 실험과 사회적 확산을 의도했던 여러 형식의 동인활동을 순차적으로 디지털 자료화할 예정입니다. 동인지에 대해 정희진 연구자는 “‘또문’으로 불리며 한국 사회 최초로 공동체 문화, 대안 문화를 실천한 이들이 직접 만든 책. 통일, 여성, 교육 문제까지 한국 사회 거의 모든 문제를 아우름. 여성학 책이 귀했던 시절, 유일한 여성주의 바이블이었다.”고 평했습니다.

## 또 하나의 문화, 그 시작

1980년대는 1980년 5월 광주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1987년 2월 18일, 21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해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서는 등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르던 시기에 조형, 조한혜정, 조옥라, 조은, 장필화, 박혜란, 정진경 등 사회학과 여성학을 연구하던 여성들이 모여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언어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페미니스트 동인모임이자 담론적 실천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그 이름에서부터 ‘다른 문화’ 즉 ‘대안 문화’를 향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일관됐던 슬로건에서는 한층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 유연한 사회를 향한 ‘대안 문화’를 추구했던 또 하나의 문화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정희의 삶과 문학

고정희(본명 고성애, 1948~1991)는 문인입니다. 시(時)를 주로 썼으니, 시인으로 ‘분류’되지요. 그러나 ‘시인(詩人)’이라는 두 글자로는 그의 문학과 43년 삶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27세 때 『현대시학』 추천으로 등단합니다. <전남일보> 기자와 광주 YWCA 대학생부 간사, 크리스천아카데미 출판부 책임 간사와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을 역임했지요. 1984년 시작된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서의 활동을 토대로, 1988년 창간된 <여성신문>의 초대 편집주간도 지냈지요. 1975년 등단 이후 격동의 1980년대를 거치며, 고정희는 시인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시와 여성주의를 결속시켰어요. 여성으로서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는 민중과 여성에게 가혹하던 1980년대, 민족과 민중 그리고 여성의 해방과 자유에의 갈망을 차갑고도 뜨겁게 담아냈습니다. 고정희는 1980년대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한 시인입니다. 고정희 사후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이 매년 그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정희상을 제정해 여성예술분야와 다양한 현장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